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

Rimsky  
Korsakov  
“Scheherazade”

지휘 — 함신익

피아노 — 송은채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2026

03. 12. Thu

19:30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Op. 36

림스키-코르사코프 — 러시아 부활제 서곡, 작품번호 36

FRE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쇼팽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번호 11

피아노 —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Op. 35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작품번호 35



#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5~2026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3억 원 이상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1억 원 이상

### 말러 Circle 5,000만 원 이상

티에스이  
에프에스티  
풍산  
세봉

### 브람스 Circle 3,000만 원 이상

지에프에스  
골프존  
디에스케이

### 브루크너 Circle 2,000만 원 이상

면사랑  
김석수

### 슈베르트 Circle 1,000만 원 이상

윤정웅  
세아제강  
신승일  
영앤진세무법인

### 베토벤 Circle 500만 원 이상

엔피코리아  
송백규  
장원기

### 쇼팽 Circle 300만 원 이상

다진  
문형주  
안정근  
이경혜

### 모차르트 Circle 100만 원 이상

코스모엠  
김기태  
계양수치과  
이근혁  
신갑순  
한수향

###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전홍구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응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심남영  
홍정표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Rimsky-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

##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Op. 36

러시아 부활제 서곡, 작품번호 36



Frédéric Chopin (1810-1849)

##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번호 11

- I. Allegro maestoso ..... 빠르고 장엄하게
- II. Romance : Larghetto ..... 로망스 : 다소 느리고 부드럽게
- III. Rondo : Vivace ..... 론도 : 매우 빠르고 경쾌하게

피아노 송은채

### [ Intermission ]



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

## Scheherazade, Op. 35

세헤라자데, 작품번호 35

- I. Largo e maestoso - Allegro non troppo .....  
매우 느리고 장엄하게 - 빠르되 지나치지 않게
- II. Lento - Andantino - Allegro molto - Vivace scherzando .....  
느리게 - 조금 느리게 -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 매우 빠르고 익살스럽게
- III. Andantino quasi allegretto .....  
부드럽지만 경쾌하게
- IV. Allegro molto - Vivo - Allegro non troppo e maestoso .....  
매우 빠르고 힘차게 - 생동감 있게 - 빠르되 지나치지 않고 장엄하게

#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바이올린</b>	송지원 * 박진형 강은실 오하은 강윤서 김민지 김민하 김사무엘 김서연 박지우 박지윤 백운유 선유란 여소흔 이예원 이진혁 이화진 정예린 정예은 조희상 조희운 최송아
<b>비올라</b>	한지윤 김도현 김지현 김효경 선유빈 송수민 장윤정 전초희
<b>첼로</b>	임종현 권혜림 김예은 이한호 정다인 정혜술 조아진 최 영
<b>더블베이스</b>	고부현 강선률 강주형 김경원 김혜린 박예림 이유진
<b>플루트</b>	김성찬 김보경 유민아
<b>피콜로</b>	김보경
<b>오보에</b>	김소정 김우영

<b>잉글리시 호른</b>	김우영
<b>클라리넷</b>	유문선 이나원
<b>바순</b>	김윤지 고경호
<b>호른</b>	조종현 김효정 김보람 주혜준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b>트럼본</b>	이윤호 김재원 정윤철
<b>튜바</b>	김지은
<b>하프</b>	김경화
<b>팀파니</b>	이종일
<b>타악기</b>	황영광 유요한 정주환
<b>크리에이티브 팀</b>	신현숙 구현정 김재묵 유소정 이수민 정혜원 진연수

\*약장 ※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학자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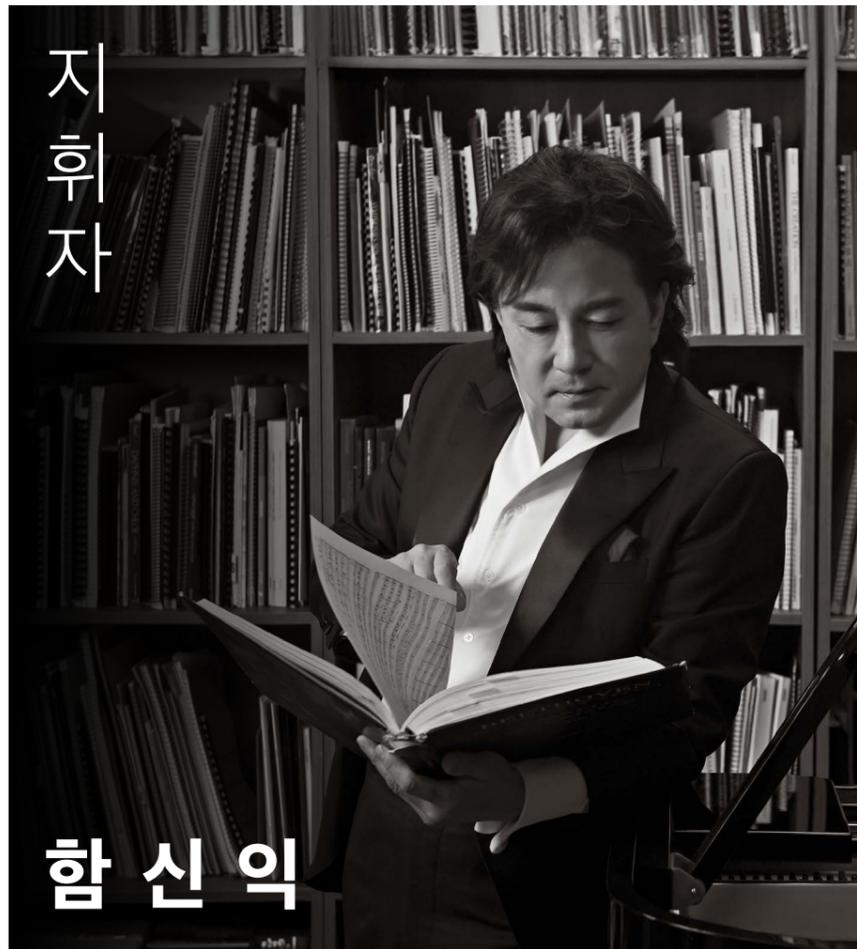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턴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공쿨에 입학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워’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워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6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Q 함신익과 심포니 송과의 특별한 인연

2021년 월간 객석—심포니 송 유망주 발굴 프로젝트 우승 이후 2022년 심포니 송과 함께 꿈의 무대인 롯데콘서트홀에서 섰던 기억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당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단 일주일 만에 준비해 우승을 차지했고, 그 치열했던 과정을 통해 이 곡은 제게 가장 특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곡을 단기간에 완수하며 얻은 배움은 결과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휘자님,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다시 재회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6년 마스터즈 시리즈의 협연자로 제안받았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음악 속에 꼭꼭 눌러 담아 표현하고 싶었고, 그 진심을 가장 잘 투영할 수 있는 곡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었습니다.

Q 이번 협연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각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관현악의 비중이 작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피아노와의 조화를 위해 의도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함 덕분에 피아노의 섬세한 감정이 더욱 극명하게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1악장은 서정적인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쇼팽의 강인하고 남성적인 면모를 표현하려 합니다. 2악장은 첫사랑에 대한 연정이 담긴 ‘Romance’인

Eunchae Song  
PIANO

만큼, 잔잔한 현악기 위로 흐르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하행 선율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3악장은 앞선 악장들과는 대비되는 눈부신 기교와 경쾌함이 폭발하며 화려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곡은 젊은 쇼팽의 감성과 열정이 아름다움의 극치로 승화된 작품입니다. 관현악의 든든한 뒷받침 속에서 피아노가 그려내는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젊은 연주자로서의 비전과 다짐

음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표현이며, 결국 사람을 향해 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성취나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단 한 분의 관객이라도 그 마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음악가로서 경쟁과 도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속에서도 저만의 호흡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깊이를 탐구하며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교를 넘어 무대 위의 진정한 성과 책임감을 지닌 연주자로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되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다짐입니다.

Q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 느끼는 매력

협연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연은 단순히 독주와 관현악의 결합을 넘어, 서로 다른 해석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지휘자가 제시하는 구조와 오케스트라의 색채, 그리고 피아노의 독자적인 호흡이 어우러질 때 음악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함신익 선생님은 음악의 구조와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어, 그 안에서 제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심포니 송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운드가 더해져 협연의 순간이 더욱 깊고 특별하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연주할 때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Q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연주되는 40분 내내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일상의 근심과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음악이 주는 순수한 감동으로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곡을 통해 느끼신 따스한 감정들이 공연장을 나서시는 발걸음에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연주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한 발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FILE

- 16세에 월간 객석—심포니 송 공동 주최 유망주 발굴 프로젝트 콩쿠르 우승
- 2022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협연
- 2019년 금호영재 선발, 2021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공식 데뷔
- 파데레프스키 국제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 상위 입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수료(사사: 손민수) 이후 도미
- 뉴잉글랜드 음악원 장학생 입학
- 현)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에서 드니 파스칼을 사사하며, 아르코 앙상블 단원으로 선발되어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

# Nikolai Rimsky-Korsakov

##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Op. 36

### 러시아 부활제 서곡, 작품번호 36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러시아 부활제 서곡”은 1887년 8월에 작곡을 시작하여 1888년 4월에 완성된 음악회 연주용 전주곡으로, ‘종교적 주제에 의한 서곡(Overture on Liturgical Themes)’이라는 부제를 지닌다. 러시아 5인조 동료였던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Modest Mussorgsky)와 알렉산더 보로딘(Alexander Borodin)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되었으며, 188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스페인 기상곡(Capriccio Espagnol, Op. 34)’, ‘세헤라자데(Scheherazade, Op. 35)와 함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Nikolai Rimsky-Korsakov’s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was composed between August 1887 and April 1888 as a concert overture. It carries the subtitle Overture on Liturgical Themes, reflecting its basis in religious melodies. The work was written in memory of his colleagues in the Russian Five, Modest Mussorgsky and Alexander Borodin, and premiered in 1888 in Saint Petersburg. Along with Capriccio Espagnol, Op. 34 and Scheherazade, Op. 35, it is considered one of Rimsky-Korsakov’s masterpieces of orchestral writing.

# Frédéric Chopin

##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번호 11

스무 살의 쇼팽이 바르샤바를 떠나기 직전 완성한 작품이다. 실제로는 협주곡 제2번 Op. 21 이후에 작곡되었지만, 먼저 출판되어 제1번으로 불렸다. 1830년 10월 11일 바르샤바 국립극장에서 쇼팽 자신의 협연으로 초연되었으며, 이는 고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무대이자 애절한 고별 연주회가 되었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를 섬세한 배경으로 배치하고 피아노가 중심에 서서 기교와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작품이다. 고전적 건축미를 중시한 기존 협주곡과 달리, 벨리니 오페라 아리아처럼 긴 호흡의 프레이징과 유연한 장식음이 돋보인다. “베토벤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위해 작곡했다면, 쇼팽은 피아니스트를 위해 작곡했다”라는 평가처럼, 피아노는 타악기적 한계를 넘어 부드러운 레가토로 노래하며 감정의 절정을 이룬다.

Chopin composed this work at the age of twenty, shortly before leaving Warsaw. Although it was actually written after his Piano Concerto No. 2, Op. 21, it was published first and thus became known as his First Concerto. The premiere took place on October 11, 1830, at the National Theatre in Warsaw, with Chopin himself as the soloist. This performance became his final official appearance in his homeland, serving as an emotional farewell concert. The concerto places the orchestra in a delicate supporting role, allowing the piano to shine with both virtuosity and lyrical expression. Unlike classical concertos that emphasize architectural structure, this work features long, operatic phrasing and flexible ornamentation reminiscent of a Bellini aria. As one critic noted, “If Beethoven composed for the piano, Chopin composed for the pianist”, the piano transcends percussive limitations, singing in a smooth legato that conveys the height of emotion.

### I. Allegro maestoso

Following a grand orchestral introduction, the piano enters brilliantly. The bold, heroic first theme contrasts with the lyrical second theme, forming a concerto-style sonata structure. Arpeggios, octaves, and virtuosic passages are presented, yet they always resolve into singing, expressive melodies rather than mere display.

### 1악장

#### Allegro maestoso 빠르고 장엄하게

장중한 오케스트라 서주에 이어 피아노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강렬하고 영웅적인 제1주제와 감미로운 제2주제가 대비를 이루며 협주적 소나타 형식을 구축한다. 아르페지오와 옥타브 등 화려한 기교가 펼쳐지지만, 단순한 전시를 넘어 노래하는 듯한 선율미로 귀결된다.

### 2악장

#### Romance : Larghetto 로망스 : 다소 느리고 부드럽게

쇼팽의 첫사랑이자 뮤즈였던 소프라노 콘스탄차 그와트코프스카를 향한 연가이자 쇼팽식 서정의 정수다. “달빛 비치는 봄밤의 고요하고 애절한 추억”이라는 작곡가의 묘사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소프라노 아리아 같은 낭만적 울림이 압권이다. 자유로운 루바토는 연인의 은밀한 독백처럼 밤의 정서를 깊이 파고든다.

### 3악장

#### Rondo : Vivace 론도 : 매우 빠르고 경쾌하게

몽환적인 2악장과 대비되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 폴란드 민속 춤곡인 ‘크라코비아크(Krakowiak)’ 리듬을 활용한 경쾌한 악센트와 기품 있는 탄력은 고국을 향한 자부심을 증명한다. 찬란한 에너지와 눈부신 기교가 어우러지며 화려한 피날레를 성취한다.

# Nikolai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Op. 35

### 세헤라자데, 작품번호 35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바다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해군이었던 형으로부터 온 편지들을 읽으면서 바다 너머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어린 시절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은 그의 호기심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선원들의 전문용어를 외울 정도로 바다에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꿈을 단계적으로 실현했다. 졸업 후 석 달간 알마즈 호에서 선상 체험을 하며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경험을 쌓았다.

1874년,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크림반도 남단에 위치한 세바스토폴로 여행했다.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거리의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이슬람 사원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이국적인 색채를 가득 머금은 음악 소리와 집시의 음악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국적인 색채에 대한 그의 열정이 폭발했던 것은, 그가 존경해 하지 않았던 작곡가 보로딘의 죽음 때문이었다. 1887년 보로딘의 서거 소식을 듣고 그는 며칠 밤을 잠을 자지 못했다. 더군다나 보로딘이 오페라 ‘이고르 공’의 완성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자신의 작업을 뒤로 미루고, 보로딘이 완성하지 못한 오페라 ‘이고르 공’의 완성에 매달렸다. ‘이고르 공’ 속에 등장하는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머금은 음악,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슬람 지역의 음악들은 다시 한번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국의 음악들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는 곧 자신의 이름으로 동양풍의 판타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9세기부터 아랍, 페르시아, 인도 등지에서 떠도는 만담들을 집대성한 책인 ‘천일야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라비안나이트’였다. 그리고 그 음악은 그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로 탄생했다.

‘아라비안나이트’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책이었다. 18세기 앙투안 갈랑의 프랑스어 번역으로 유럽에 소개되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가 이 책에 실린 몇몇 장면들을 뽑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음악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몇몇 인상적인 소재들을 바탕으로 음악적 장면을 그려내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 러시아인의 상상력으로 해석된 중동 지방 옛 이야기의 스냅샷이었다.

### II. Romance: Larghetto

This movement is a love song to Chopin’s first muse, the soprano Konstancja Gładkowska, embodying his quintessential lyrical style. As Chopin described it, it evokes “a quiet, tender memory of a spring night bathed in moonlight.” The free rubato allows the piano to act as an intimate voice, akin to a lover’s private reflection.

### III. Rondo: Vivace

In contrast to the dreamy second movement, the finale bursts with bright and lively energy. It draws on the rhythms of the Polish folk dance, the Krakowiak, combining spirited accents with graceful elasticity. The movement balances dazzling virtuosity with exuberant energy, culminating in a brilliant, celebratory conclusion.

Rimsky-Korsakov’s fascination with the sea was extraordinary. From a young age, he eagerly read letters from his older brother, a naval officer, which fueled his curiosity about the world beyond the seas. In his childhood, books were his only way of satisfying this curiosity. He learned sailors’ technical terms and eventually entered the Naval Academy, gradually realizing his dream. After graduation, he spent three months aboard the Almaz, gaining firsthand experience sailing around the world. In 1874, he traveled with his wife and children to Sevastopol, at the southern tip of the Crimean Peninsula. There, in a region influenced by Islamic culture, he was captivated by the sounds of street vendors, the calls to prayer from mosques, the exotic music of the region, and the lively tunes of gypsy bands. His passion for exotic sounds reached a peak upon hearing of the death of his revered colleague Alexander Borodin in 1887. Rimsky-Korsakov spent several sleepless nights mourning Borodin, who had passed away before completing the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두 사람이다. 먼저 술탄 샤리아르는 자신과 첫날밤을 치른 아내를 모두 살해하는 악명 높은 왕이다. 그와 결혼한 술타나 세헤라자데는 그가 무자비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에게 세상의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루에 딱 하나씩, 천 하룻밤에 걸쳐 들려준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 성공한다.

1악장

**Largo e maestoso - Allegro non troppo** 매우 느리고 장엄하게 - 빠르되 지나치지 않게



1악장 주제

샤리아르가 등장하며 음악은 억압적이고 무자비한 폭군인 그를 베이스 음역대의 악기를 이용해서 무겁게 그린다. 곧 현실을 떠나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떠나는 듯한 목관악기의 화음이 이어진다. '역자식 구성'인 셈이다. 샤리아르의 마음을 잠재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세헤라자데다. 가녀린 바이올린 독주가 하프의 반주를 타고 등장하며 세헤라자데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한

opera Prince Igor. He devoted himself to completing Borodin's unfinished work, and the music of Central Asia, Türkiye, and other Islamic regions within it reignited his own fascination with exotic themes. Once he successfully completed this task, he embarked on creating his own Oriental fantasy, drawing inspiration from One Thousand and One Nights, the famous collection of Middle Eastern tales. This work eventually became his symphonic suite Scheherazade.

One Thousand and One Nights was already well-known in Europe, introduced in the 18th century through Antoine Galland's French translation. Rimsky-Korsakov did not aim to depict specific scenes from these stories. Rather, he drew on memorable motifs to create musical tableaux, interpreted through the imaginative lens of a 19th-century Russian composer.

The narrative is driven by two main characters. Sultan Shahriyar, notorious for executing his wives after their wedding night, is married to Scheherazade, who gradually wins his heart by telling him captivating tales—for One Thousand and One Nights—until his cruelty softens.

I. **Largo e maestoso - Allegro non troppo**

The Sultan is introduced, depicted as a cruel and oppressive figure through dark, low-register instruments. Woodwinds then carry us into a world of storytelling, establishing a musical frame narrative. Scheherazade, whose tales calm Shahriyar's heart, enters with a delicate violin solo accompanied by the harp, evoking her sensual beauty. The narrative soon leads to a rolling sea and the adventures of Sinbad upon it.

II. **Lento - Andantino - Allegro molto - Vivace scherzando**

Scheherazade continues her storytelling, introduced by the violin solo. Themes and variations follow, featuring the pilgrim Prince Kalender, portrayed through a mysterious Eastern melody

다. 그리고 곧 이야기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그리고 이 바다에서 신드바드가 겪게 되는 모험으로 안내한다.

2악장

**Lento - Andantino - Allegro molto - Vivace scherzando**

느리게 - 조금 느리게 -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 매우 빠르고 익살스럽게



2악장 동기

2악장도 세헤라자데의 등장(독주 바이올린)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제와 변주 형식이 이어지는데, 순례에 나선 칼렌다르 왕자가 바순으로 연주되는 신비로운 동양풍의 선율을 입고 등장한다. 칼렌다르 왕자는 아라비안나이트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탁발승이다. 볼품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만, 품위가 있는 이 왕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샤리아르의 주제가 등장하여 긴장감을 높인다.

3악장

**Andantino quasi allegretto** 부드럽지만 경쾌하게



3악장 주제

서정적인 선율이 전체를 감싼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라비안나이트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다. 중간부에는 밝고 경쾌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 5인조의 스승 같은 존재였던 밀리 발라키레프의 '타마라'의 선율을 인용한다.

4악장

**Allegro molto - Vivo - Allegro non troppo e maestoso**

매우 빠르고 힘차게 - 생동감 있게 - 빠르되 지나치지 않고 장엄하게



4악장 동기 재현

앞서 등장한 세 악장의 요소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대단원을 만들어간다. 샤리아르의 주제가 빠른 리듬으로 제시되고, 세헤라자데의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다양한 타악기들의 등장은 떠들썩한 바그다드의 축제 풍경을 그리고, 3악장에 등장했던 '타마라' 선율이 다시 인용된다. 1악장에서 거친 바다를 연상시켰던 음형들이 다시 등장하고, 샤리아르의 주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배가 암초에 난파당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마지막에는 모든 주제가 장조로 등장하면서, 세헤라자데의 긴 이야기는 환상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on the bassoon. Though he appears in humble attire, the prince retains dignity. Shahriyar's theme abruptly returns, heightening tension.

III. **Andantino quasi allegretto**

A lyrical melody pervades the movement. Though not tied to a specific story, it evokes the many love tales scattered throughout One Thousand and One Nights. In the middle section, a bright and lively theme appears, quoting Mily Balakirev's Tamara, a mentor to the Russian Five, of which Rimsky-Korsakov was a member.

IV. **Allegro molto - Vivo -**

**Allegro non troppo e maestoso**

Themes from the previous three movements come together to form a grand finale. Shahriyar's theme returns with a brisk rhythm, and Scheherazade's theme reappears. Various percussion instruments depict the bustling festival of Baghdad, while the Tamara theme from the third movement resurfaces. Motifs suggesting the stormy sea from the first movement return, and Shahriyar's theme reemerges as a ship is wrecked on rocks. The suite concludes triumphantly with all themes in a major key, bringing Scheherazade's long story to a fantastical close.

합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III

Shostakovich

“Symphony No. 5”

지휘 — 합신익

피아노 — 김규연

©Kyutai Shim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2026

05. 30. Sat

19:30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티켓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하나은행 NOROO PONGSAN TSE FST SEBONG 면사랑 화광교역(주) SeAH 코스모스악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OMOS CORPORATION SYMPHONY SONG SHINIK HAHM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in A Major

쇼스타코비치 — 축전서곡 가창조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사단조

피아노 — 김규연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in D minor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5번 라단조

2026 합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르네서트홀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이윤정, 김선정,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03. 12 THU 19:30

LOTTE CONCERT HALL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05. 30 SAT 19:30

LOTTE CONCERT HALL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김규연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베르디 “레퀴엠”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르네서트홀



GIUSEPPE VERDI Requiem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MODEST MUSSORGSKY /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09. 12 SAT 19:30

LOTTE CONCERT HALL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10. 24 SAT 19:30

LOTTE CONCERT HALL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윤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지휘, Darrell Ang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브람스 페스티벌

11. 16 MON 19:30

LOTTE CONCERT HALL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르네서트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 특별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구분	석종	회차	원가	할인 후 가격
3월 31일까지 구매시 <b>10%</b>	VIP석	6회	720,000원	648,000원
	R석	6회	600,000원	540,000원
	S석	6회	420,000원	378,000원
	A석	6회	300,000원	27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6회	300,000원	200,000원
	B석	6회	180,000원	100,000원

###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 시즌패스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등급  R석  S석  A석

수령 방식  현장수령(추천)  자택 또는 회사 주소 \_\_\_\_\_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회 수시가입 가능



함신의 지휘자 **최신작**



# 꿈꾸는 지휘자 마에스트로



주문  
02-549-0046



구성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현실을  
걱정하는 MZ에게,  
어느덧 세월을 보낸  
진정한 어른들에게,  
지나간 연주 인생에서 얻은  
성찰과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http://www.tse21.com)

@life.tse

# TSE

※본 도서의 판매금은 심포니 송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HANDIUM

# PANAMA GEISHA

##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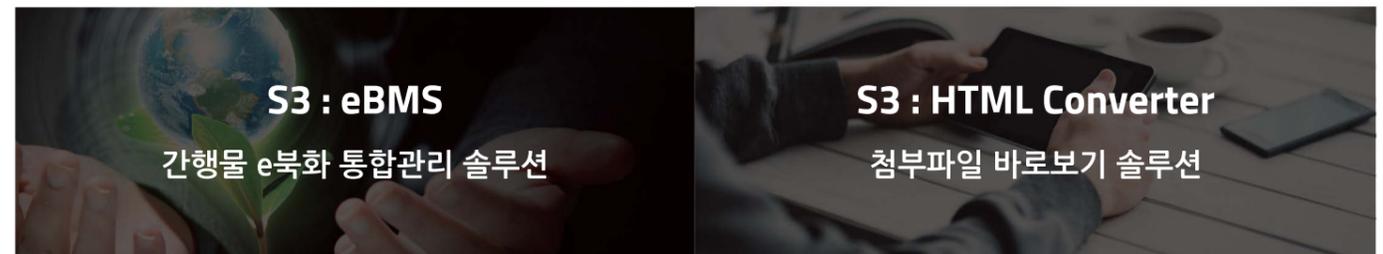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www.k2web.co.kr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